

## 만인의사, 그날의 불꽃은 아직

낮은 언덕 위에  
바람이 분다.  
잊힌 줄 알았던 이름들이  
돌 틈 사이로 피어난다.

검은 연기 속에서  
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.  
칼 없는 자,  
총 없는 자,  
그러나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자.

정문부의 외침은  
천 명, 만 명의 마음을 흔들었고  
흙 묻은 손, 굳은 몸으로  
모두가 의병이 되었다.

그날,  
나라가 무너지는 소리보다  
더 크고 단단했던 것은  
백성의 의지였다.

죽어도 함께 산다는 말 아래  
그들은 하나가 되었다.  
가족을 두고, 집을 등지고  
누구는 스물, 누구는 열넷.  
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 
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.

그러나 그 피는  
단 한 방울도 헛되지 않았다.  
그 희생은  
돌이 되고, 꽃으로 피고, 바람이 되어  
오늘 우리 곁을 지키고 있다.

묻는다.  
그들의 땅에서  
그들의 후손으로 사는 우리는  
과연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.

만인의사여,  
당신의 무덤은 작지만  
그 정신은 세상에서 가장 넓고 깊다.  
당신이 남긴 의는  
오늘도 이 나라를 숨 쉬게 한다.

우리는 다시 걸음을 멈춰  
그대 앞에 선다.  
이름 없는 별들이여,  
당신이 피운 그 불꽃,  
우리 가슴에 꺼지지 않게 하리라.